

BASF, 계열사 구조조정 본격화

Ciba Holdings와 통합 ... 3700명 감원에 화학공장 23개 감축

BASF가 2013년까지 인원 감축, 사업부문 매각, 공장 폐쇄 등 강도 높은 구조조정에 착수한다.

BASF는 계열사 구조조정으로 4월 인수한 스위스 화학기업 Ciba Holdings와 통합함에 따라 3700명을 감원하고, Ciba의 글로벌 생산공장 55개 가운데 23개를 줄이는 등의 구조조정과 사업부문 매각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Ciba Holdings에 대한 최종적인 구조조정 계획을 2010년 1/4분기 말까지 마무리하고, 나머지 32개 공장은 BASF의 글로벌 생산 네트워크로 활용할 예정이다.

BASF는 세계적으로 9만7000명을 고용하고 있으며 구조조정을 통해 약 3700개의 일자리를 줄이고 연간 5억 5500만달러의 사업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구조조정은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방법으로 진행될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미 BASF 노조와 협의가 진행되고 있다.

위르겐 함브레히트 회장은 “근로자들에게 불행한 뉴스지만 구조조정을 통해 통합된 회사가 효율적으로 경영되고 잠재적 시너지 효과를 발휘한다면 장기적으로 성공적인 기업이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BASF는 세계 2위의 화학기업으로 플라스틱, 비료 등 농업제품, 원유, 천연가스 등을 생산하고 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09/07/07>